

\$



○ 미국 DAP, 재고 감소와 수출에 따른 가격 회복 예상

미국 DAP 수출가격은 요즘에 와서 다소 상향 기미의 회복 징조가 보이며, 대체로 최악의 저가 시세라고 관측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내의 추비 시즌 진입을 앞에 두고 있고, 또한 해외 동향 등과 관련해 볼 때 상승할 것인지를 의문시 되고 있다.

미국 DAP 가격이 바닥치기에서 상향 징조에 있는 것은 대형 제조업체들이 금년에 들어와서 수급·시황 대책을 목적으로 감산 태세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인데, 가격은 강세의 상승으로 변화한 뒤에 다시 하강 경향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조업체의 대폭적인 감산 지속으로 재고가 줄고, 동시에 시기적으로도 중국 등의 인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배경이 되고 있다. 수출에서는 요즘 중국시장 쪽으로 화물 이동이 왕성하여 6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70만톤에서 80만톤, 기타 시장쪽으로 가는 것을 포함하면 100만톤에 달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재고가 감소하는 한편, 중국행 등 수출 선적의 활성화에 따라 수급·시황이 차자 개선의 방향으로 간다고 할 수 있다.

중국행은 6월 텁파항에 대형 선박 6파이가 들어선 것을 비롯해, 7~8월도 대형 배에 선적된다는 전망으로 6~8월에는 70만~80만톤 규모로 선적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기타 시장 행을 추가하면 이 기간만으로도 대략 100만톤에 이른다는 관측이다. 수출 동향이 이렇게 움직이면 감소한 재고는 제조업체의 생산 조정으로 이어져, 다시 생산량의 증가가 가격 상승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 7. 9 >

○ 미국 천연가스 가격 하락, 암모니아 생산에 미치는 영향 주목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요즘 하락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MMBtu 당 4달러 근처에서

\$

3달러대로 하락하고 있는 것 같다. 업계측에 의하면 한때 10달러까지 상승한 것에 비해서 1/3 정도의 가격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수급면에서 사상 최고치라 할 수 있는 10달러까지 뛰어 오르고 이 때문에 비료관련 제조업측에서도 암모니아의 생산은 비싼 가스가격에 의한 원가 이하로의 하락이 지속함으로서 제조업체들은 상당히 힘든 생산 중지라는 궁지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암모니아는 비싼 가스가격, 생산원가 이하로의 하락으로 인해 조업을 중지하고 대신에 미국은 암모니아를 수입하게 되었고 가격은 C&F 250-270달러대까지 급등하여 고가의 가격이 도래하게 되었다.

이후 가스 가격은 MMBtu 10달러에서 9-8달러까지 하락하고, 다시 6-5달러 또는 4달러로 하락을 반복하여 제조업체들도 원가 균형 때문에 조업 중지, 그리고 재개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요즘 또 가격하락으로 이동해서 최근에는 3달러에서 3달러대 후반으로 하락, 암모니아 생산의 원가 수준으로 하락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측에서는 가스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고 암모니아 생산 원가마저 하락하게 되면 중지했던 제조업체의 생산 재개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스의 가격 하락으로 중지했던 제조업체가 암모니아 생산의 재개에 들어 갔다는 정보는 아직 없는 것 같으나, 가스가격 하락이 이어지면 제조업체에 따라서는 재개가 확실시 되고 이 결과 미국으로의 암모니아와 요소의 유입에도 제동이 걸리고 또한 DAP 등의 생산 원가 저하에도 연동될 것으로 보여 그 동향이 주목되고 있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 7. 4 >

○ 인도네시아 아체주, 설비 점검 후 생산 재개

최근까지의 몇 가지 정보를 종합해보면, 3월부터 중지에 들어 가 있던 인도네시아·아체특별주의 천연가스 채굴은 7월 상순부터 재개하여 생산을 시작할 전망이다.

그러나 가스의 재생산 후에 아세안·아체들의 요소 생산이 재개되는 것은 8월 이후에나

~~~~~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아체특별주의 천연가스는 미국계인 액슨·모빌 소유로 동사들은 동주의 치안 악화를 이유로 금년 3월에 생산을 중지하였다. 이것으로 개스를 받고 있는 관련기업에 공급 불안을 주고, 동시에 아세안·아체와 푸꾸꾸·에스칸달무다 등 요소 제조업자들도 원료난으로 생산을 중지할 수 밖에 없는 궁지에 빠져들어 불가항력의 선언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정보에 따르면 액슨·모빌은 차차 천연가스 생산 재개로 움직이고, 설비의 안전성을 체크하기 위한 기술자를 동주로 보내어 안전 여부 확인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로서 액슨·모빌은 7월 상순부터 개스 채굴을 시작하여 생산 태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개스 생산인 경우 개스 구입을 계약한 관련기업에 우선 공급을 시작하고 아체 등의 요소 생산의 원료에 돌리는 것은 그 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요소의 재 가동은 그 다음으로 빨라야 8월쯤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료 천연가스의 도입 난으로 요소 생산을 중지한 아세안·아체 등의 조업 정상화에는 천연가스가 설령 7월에 생산 재개하기로 되었다 해도 당장 가능된다고 말 할 수 없고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아세안·아체, 푸꾸꾸·에스칸달무다의 요소 생산능력은 합해서 140만톤이라고 하므로 생산 중지로 요소의 국제 수급 긴축상태나 시황의 상승을 환기시킬 것으로 추측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다지 영향을 주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 6. 25 >

## ○ 요소 국제시황

요소의 국제시황은 요즘 상향 회복감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대로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갈 것인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업계측 관측에 의하면 공급측의 흑해 선적이나 중동, 인도네시아 제품 등이 모두 다 저가에서 벗어나 상승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요소의 시황은 악화의 지속으로 흑해 선적에서는 FOB 베이스 85달러, 중동 95달러, 인도네시아 100달러 목표로 했는데 관측에 의하면 이러한 시황은 최근, 흑해 FOB 베이스 90달러대에 오르고 중동 90달러 후반, 인도네시아 100달러대로 각각 상승하여 약간의 강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시세의 반등으로 돌아섰고, 인도네시아의 아세안·아체 등이 천연가스의 입수 난에 의한 생산 중지의 장기화, 베네수엘라의 신 공장 설비 2계열 중 1계열의 가동 중지, 중동세의 일부공장 설비의 생산트러블에 의한 공급 감소 등과 미국의 추비 시즌에 대한 수요 커버를 위한 매입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중동 제품 등을 중심으로 7월까지 매진상태인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한다.

요컨대 공급측의 여력이 적어지는 한편, 미국 등의 매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주 요인으로 보이고, 시황은 지금까지의 궁지에서 벗어나서 “상향의 강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흑해 선적은 FOB 베이스 90달러 대로 오르고, 중동 제품은 같은 90달러 대 후반(97~98달러)에서 다시 상승하여 100달러대 오름으로 상승할 것인가가 이 시황의 다음 번 초점이 될 것 같다.

그러나 요소 시황이 회복 강세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난국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시황적으로는 FOB 베이스 110~120달러 대까지 오르지 못하면 실질적인 “회복의 반등”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 6. 20 >

## ○ 미국 DAP, 수입 감소에 따라 가격 하락

미국 DAP 수출가격은 여전히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하절기의 수요감소와 중국 등 해외 수요의 감소, 재고 증가 등이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제조업체가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가격대책을 강구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DAP 가격에 대해서는 IMC 등 각사의 공장설비 중지 등 생산 조정, 재고 감소 등의 대책을 세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황은 급속도로 상향 기조로 되어 원가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요즘 이 가격의 상향 회복도 일시적이었다가 다시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체로서는 현재의 생산조정 강화에 이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인가, 대량 수입국인 중국이 수입을 반이상 줄이는 한편, 인도와 호주 등 신규 제조업체의 DAP

\$\$\$\$\$\$\$\$\$\$\$\$\$\$\$\$\$\$\$\$\$\$\$\$\$\$\$\$\$\$\$\$\$\$\$\$\$\$\$\$\$\$\$\$\$\$\$\$\$\$\$\$\$\$\$\$\$\$\$\$\$\$\$\$\$\$\$\$\$\$\$\$\$\$\$\$\$\$\$\$\$\$\$\$\$\$\$\$\$\$\$\$\$\$\$\$\$\$\$\$\$\$\$\$\$\$\$\$\$\$\$\$

생산, 미국 재고의 상황 등이 있는 중에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는가.

미국 제조업체의 DAP 생산조정은 반복의 연속으로 대책의 선택도 지금으로서는 한계에 부딪혀 있고, 제조업체의 생산 철수가 있을지 없을지 원가면에서도 주목된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 6. 15 >

## ○ 중국, 동남아로 향한 요소 수출

당면한 중국의 대외 요소 수출은 지금 슬슬 조금씩 움직이는 조짐이 보이는데,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그다지 들리지 않는다고 업계측에서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즌이 더욱 하강하고, 시황의 움직임 여하에 따라 앞으로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계약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동 관측통에서는 추측하고 있다.

작년부터 시작한 중국의 요소 수출은 년말까지 80만톤 또는 100만톤에도 달할 것이며 이들 시장은 동남아와 서남아, 그리고 미국 등이라고 보도되었다.

여기에 이어지는 금년 중국의 요소 수출은 1~4월 기준으로 이미 40만톤 혹은 50만톤이라고 보도되어, 년간으로 볼 때 140만톤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보는 관측과 200만톤을 넘을 것이라는 전해도 흘러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중국 요소 수출에 관해서는 1~4월의 40만톤 수출이라는 것 이외에 별다른 얘기가 들려오지 않는 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업계관측에 의하면 당면한 중국의 대외 요소 수출은 동남아 등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서 침체 기미인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고, 양적으로 어느 정도의 선적이 이루어졌는가는 알 수 없다. 그렇다고 중국의 요소 수출이 중지된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하며, 앞으로 여름 시장을 중심으로 동남아 등에 대한 수출이 분명할 것이라고 동 관측에서는 보고 있다.

중국의 금년 요소 수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국내의 수급 동향과도 관계가 있는 만큼 그 동향이 주목되고 있다.

중국은 작년 이전에는 요소 수입의 대형바이어였는데, 그 후 국내 자급화의 진행과 국제 시황의 반발기를 받아들여 수출국으로 바뀌는 구조로 되었다.

\$\$\$\$\$\$\$\$\$\$\$\$\$\$\$\$\$\$\$\$\$\$\$\$\$\$\$\$\$\$\$\$\$\$\$\$\$\$\$\$\$\$\$\$\$\$\$\$\$\$\$\$\$\$\$\$\$\$\$\$\$\$\$\$\$\$\$\$\$\$\$\$\$\$\$\$\$\$\$\$\$\$\$\$\$\$\$\$\$\$\$\$\$\$\$\$\$\$\$\$\$\$\$\$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화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것이 항상 그러할 것인지, 금년의  
동향이 주목되고 있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 6. 14 >

♣ 먹는 것은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요. 입는 것은 남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다.

< 트렁클린 >